

한·미 방산협력 - 성과와 당면과제

● 白永勳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院長, 경제학박사

본인은 오늘 개최되는 한·미 방산회의의 개최에 즈음하여 한·미 방위산업협력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1986년 제1차 한·미 방산회의의 단장으로서 참가할수 있었던 영광을 가졌는데, 이처럼 매년 개최되는 방산회의는 한·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이해를 증진시키는 광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이 회의가 창설된 이후 비록 짧은 역사이나마 양국의 방위산업체는 물론 정부간의 협력노력을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양국 정부와 방산협회의 기여와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와 방위산업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아세아국가중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지난 30년동안 한국경제는 연평균 9.3%의 성장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경제규모면에서 일본과 호주에 이어 아시아에 있어서 명실공히 세번째로 큰 나라로 부각되고 있으며, 경제성장

율면에서는 매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무엇보다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그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이미 한국은 지난날의 어려웠던 국제수지 적자 수준을 탈피하여 이른바 흑자경제시대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와같은 경제기반을 토대로 무역과 자본자유화를 비롯한 새로운 개방화시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전환점에서 한·미간의 방산협력 관계도 새로운 시대를 개막해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경제발전을 위해 2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양한 제조업체의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인 방위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방위산업이 크게 기여하였으며,

둘째는 방위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해서 기술고도화의 전진적 역할을 담당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술고도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와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중공업을 비롯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방위산업의 성장율을 살펴보면 제

3차 경제개발계획기간인 1972~1976년동안 방위산업은 연평균 18%의 성장을 하여 왔고,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에는 13%, 제5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에는 8.5%, 제6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는 5.6%의 성장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와같은 발전과정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자체의 방위능력에도 매우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은 어려운 단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설비가 지난 5년동안 연평균 59.9%의 낮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이와같은 어려운 정부는 조달의 급진적인 축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방위산업 협력과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한국경제는 지금 무역과 자본자유화 등 새로운 개방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방위산업 협력관계도 이러한 새로운 경제발전 에 부응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방위산업은 결코 한나라의 자급체제에 의해서만 성취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위산업도 이제부터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국제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방위산업의 국제간 협력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통해서 볼때 방위산업의 국제협력은 방위능력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도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미국의 투자진출도 지난 기간 동안 많은 증가를 하여 왔으며,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영역에서도 양국간의 투자협력은 증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한·미간의 다국적생산은 제품과 기술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자매회사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하청기업의 기업관계를 통해서 더욱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업협력의 방법이 한국기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을 위해서도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적인 위치에서 한·미 경제협력관계가 어떠한 이점을 지니고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또 이 협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진시킬수 있는가에 귀착된다고 봅니다.

방위산업의 영역은 방대하며 다양합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협력관계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의 방위산업 협력 관계를 놓고 볼때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중요하다고 보며, 이들 문제는 결코 문제의 단일성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상호보완적인 의미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는 산업간 협력이고, 둘째로 공동동원체제의 협력이고, 셋째로 한국방위산업에 대한 동등한 경쟁기회의 부여이며, 넷째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이고, 다섯째, 세계적 시장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며, 이들 다섯가지 분야는 앞으로 양국간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산업간 협력체제의 구축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공업이 최적규모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주력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협력관계는 포철과 미국 스틸회사 간의 합작투자 처럼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유지될수 있습니다.

이미 1986년 美 국방부의 TAT조사단은 미국과 한국은 상호간에 밀접한 협력을 통

해서 산업체간의 협력과 방위산업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창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의의 기본이념은 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영역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할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킬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노력은 한미간 방위산업협회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업체간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본인이 이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국 정부의 확고한 목적의식과 정책적인 지원에 입각하여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방위산업 협력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동 동원체제의 확립 —————

한국은 양국의 협력하에서 東北亞 평화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처방안을 크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방위력 동원체제는 각국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동 동원체제는 보다 더 확고한 방위역량을 과시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변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방위산업의 평등한 경쟁기회 부여 —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NATO나 이집트,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와 비교하여 차등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나라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對美購買法(BA ACT)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공동연구개발, 무기구매,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등 합법적인

방위산업 육성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편협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대우 요소를 제거하고 한·미 양국간의 협력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공동 연구개발 협력체제 구축 —————

다른 민수산업과는 달리 방위산업은 투자 규모에 있어 방대한 자금과 시설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간 양적인 면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하여 왔으나 아직 질적인 수준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988년 기준(가격기준)으로 볼때 한국 방위산업의 국산화 비율은 평균 5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해외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개발 투자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한국군은 보다 정밀도가 높은 무기가 소요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전래무기체제인 수송수단 생산체제만으로는 내일의 보다 고도화된 방위체제를 자력으로 담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와 미사일, 통신기자재와 자동무기 등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973~1981년동안 전체 방위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1982~1987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그보다 낮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96년까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비를 5%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같이 방위산업의 표준화와 무기체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계시장 판매를 위한 상호협력 ———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총투자에서 약 41%는 해외로부터의 무기구입을 위해 쓰여졌으며, 그 중 약 85%는 미국으로부터 구입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협력체제는 한·미 양국간의 방위산업체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하는 방위산업 수출액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3국 수출문제는 항상 한·미간의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서 한국으로부터의 생산원가가 낮은 유리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생산제품은 물론 부품조달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은 공동생산체제의 구축을 위한 합작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전략을 수립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의 보다 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에 이르기까지 OEM방식의 채택 등 보다 더 유익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한국은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성장이 빠른 나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지난 20년동안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방위산업이 기여한 것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특히 미국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성과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발전의 확대와 높은 국민소득, 그리고 4천만을 넘는 인구를 보유함으로써 비교적 풍부한 국내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배경을 놓고

볼때 앞으로 양국의 가장 이상적인 협력은 민간업체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방식은 양국간의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경영기량을 각 분야에 걸쳐 확대함으로써 내일을 향한 한·미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되어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새로운 투자재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어 갑니다.

한국은 또한 많은 신생공업국가 및 제3세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교량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정부의 개방화정책과 특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양국은 보다 더 깊은 이해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극동에서의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는 이념정립을 위해서도 확고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위노력은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한·미간에 있어서 민간업체의 연구수행자, 학계와 문화에 이르는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양국간의 협력이 더욱 확고히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뜻에서 군사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의 총체적 테두리 안에서 방위산업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재평가해야 하며,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와같은 한·미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타개할수 있는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 회의가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데 성공적인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